지역의 품격을 담는 문화 소식지
월간 옥천문화 8월

옥천문화원 | 6호 | (043)733-5588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35[29039] | 옥천문화원.kr

옥천문화원 60년 향토문화의 중심,

군민과 함께 미래 100년을 향해

1966년 첫발을 내디딘 옥천문화원이 올해로 뜻깊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옥천문화원은 향토 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문화예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문화원은 한국 현대시의 거두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대표 축제 '지용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옥천을 대한민국 대표 문학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이와 함께 향토사 조사 · 연구 및 사료 발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학교 프로그램과 기획 행사를 지속 추진하며 군민들의 문화 향유 문턱을 한층 낮춰왔다.

나아가 옥천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기록과 보존에 그치지 않고,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생활문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옥천문화원은 지나온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옥천의 뿌리 깊은 향토 문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한편, 주민 참여형 문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지속해서 넓혀갈 계획이다.

옥천문화원 김대훈 원장은 "지난 60년은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을 올바르게 잇는 향토문화의 파수꾼이자,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미래 100년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옥천문화원 전경〉

40회 지용제 성공 개최 위한 '추진위원회' 모집

내년 40주년 맞아 민·관 함께 성대한 문학 축제 준비

정지용 시인의 시 정신을 기리는 '지용제'가 내년 40회를 맞아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위한 '지용제 추진위원회'를 모집 · 구성한다.

이번 40주년 지용제는 축제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롭게 모집하는 추진위원회는 문학 ·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축제 기획부터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까지 전반을 주도하게 된다.

문화원은 "40주년을 맞아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뜻깊은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추진위원회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39회 지용제 시끌북적문학축제〉

[기획] "조기 검진으로 건강 지키자"…

옥천문화원·옥천성모병원, 군민 건강 증진 한뜻

〈옥천문화원과 옥천성모병원 MOU체결 문화원 임원들과 성모병원 임원들〉

옥천문화원이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인 옥천성모병원과 손잡고 군민들의 국가건강검진 및 암 검진 수검 독려에 나선다.

건강검진은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바쁜 일상 등으로 제때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정기 검진을 통한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옥천문화원은 옥천성모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빠르고 정확한 검진을 받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옥천성모병원은 전문 의료 진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원스톱 검진 · 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군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옥천문화원, 군민 누구나 쉬어가는 문화 쉼터, '북카페' 운영

옥천문화원에는 문화원을 방문하는 군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북카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김대훈 원장의 주도로 기존 전시실을 개조해 조성된 이 공간은, 문화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소통과 휴식을 선사하는 문화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북카페에는 다양한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으며, 무료 커피 자판기와 음료수도 제공된다. 옥천문화원 북카페는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책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는 군민들의 정겨운 사랑방으로 사랑받고 있다.

〈관성회관에 마련된 쉼터 북카페〉

Lorem ipsum

옥천군주민자치회, 8월 22일 관성회관서 주민총회 개최

옥천군 주민자치회가 8월 22일 관성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분과별 논의를 거쳐 발굴된 다양한 지역 발전 및 주민 편의 사업 안건들이 상정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장 투표와 함께 경과보고, 안건 설명, 문화 공연 등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으며, 현장을 찾은 주민 선착순 300명에게는 밀키트 기념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우리 마을의 미래를 주민 손으로 직접 결정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 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옥천청년연합회, 8월 27일 문화교실서 월례회 개최

옥천청년연합회가 지난 8월 27일 문화교실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문화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연합회 회원간 유대를 강화하고 향후 추진할 주요 사업과 지역 청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합회 활동 경과 공유와 함께 차기 프로젝트 실행 방안이 다뤄졌다.

옥천청년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의 내실을 다지고 청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를 당부했다.

민족중흥회 충북 옥천군지회가 회원들의 문화 역량 강화와 친목 도모를 위한 8월 월례회 진행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계획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회원들은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지회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민족중흥회 관계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문화교실을 활용한 다채로운 모임을 통해 지역 문화 진흥과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은문화원, '오장환문학상' 수상자 발표

보은문화원이 한국 아방가르드 시단의 선구자 오장환 시인을 기리는 '오장환문학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본상에는 이상국 시인의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가 선정됐으며, 신인문학상에는 남혜석씨, 디카시 신인문학상에는 윤문찬씨가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오장환문학관 일원에서 펼쳐지는 '31회 오장환문학제'와 함께 진행된다.

충북의 뜻깊은 문학 축제에 우리 옥천 문화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란다.

제천문화원, 광복 81주년 기념 15회 전시회 개최

제천문화원(원장 윤종섭)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8일까지 제천시민회관에서 15회 전시회 '독립을 향한 마음, 노래가 되고 처방이 되다'를 개최했다.

독립기념관 순회전시와 연계된 이번 행사는 '독립을 위한 처방전', '독립 의 노래, 저항의 무대' 등 일제강점기 의료인과 문화 예술인의 저항 정신을 조명하는 다양한 전시 ·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열린 개전식에는 충북 북부 보훈지청장, 제천시의사회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제천문화원은 앞서 7월 30일 제천시의 사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의료인 독립 운동의 가치를 알리는데 협력했다.

충주문화원, '2026 문화가족 해외문화탐방' 성료… 내몽고 오르도스 방문

충주문화원(원장 유진태)이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2026년 문화가족 해외문화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탐방에는 유진태 원장을 포함해 문화원 임직원 및 회원 등 총 3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중국 내몽고 오르도스를 찾아 초원 문화 체험 및 승마 등 색다른 일정을 소화하며 선조들의 역사적 기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해외문화탐방은 회원들의 역사적 소양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원이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탐방에 참여한 회원들은 "영상이나 교과서로는 느낄 수 없었던 역사적 현장의 감동을 직접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진태 충주문화원장은 "이번 탐방을 통해 회원 간 유대감이 깊어지고 문화원 활동이 한층 성숙해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의미 있는 현장을 찾아 회원들의 역사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진태충주문화원장과 회원들〉

진천문화원, '헤이그 특사 120주년 기념 충북독립운동사 학술 심포지엄' 개최

진천문화원이 헤이그 특사 파견 120주년을 맞아 충북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충북독립운동사 학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천 출신 보재 이상설 선생의 헤이그 특사 파견 의의와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충북 독립운동사의 위상 제고와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진천문화원 관계자는 "이상설 선생의 애국혼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설선생기념관에서 헤이그특사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토론〉

미주 땅에 울려 퍼지는 우리 문학의 울림
우정의 종각에 한·미 문화 교류 기념 시비(詩碑) 건립 추진

미주 방문을 통해 한 · 미 문화 교류의 물꼬를 튼 본 문화원이 또 하나의 결실을 맺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페드로(San Pedro)의 한미 우호 상징물인 '우정의 종각' 내에 한국 문학을 담은 시비(詩碑)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기증된 우정의 종각에 우리 시를 세워 한국 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알리기로 현지 관계 기관 및 교민 단체들과 뜻을 모았다. 이번 시비 건립은 동포들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고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문학의 예술성을 알리는 문화적 거점이 될 전망이다. 시비에 새길 작품은 지역과 교류의 상징성을 담아 선정할 예정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페드로(San Pedro)에 있는 우정의종각 - 네이버발췌-〉

문화원 관계자는 "우정의 종이 품은 평화의 메시지에 우리 문학의 울림이 더해져 한 · 미 간 문화적 연대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문화원은 제반 절차를 거쳐 시비 건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문화 자산의 세계화와 국제 문화 교류에 앞장설 계획이다.

역사 속 지혜와 함성 재현,
'2026 청주읍성큰잔치' 개최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승병이 힘을 합쳐 성을 되찾은 승전의 역사, '2026 청주읍성큰잔치'가 오는 9월 5일(토)부터 6일(일)까지 이틀간 청주 중앙공원 및 성안길 일원에서 펼쳐진다.

청주시와 청주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육지전 최초의 승리로 기록된 청주성 탈환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청주성 탈환 퍼포먼스와 시민 퍼레이드를 비롯해 전통혼례, 과거시험 재현, 4대문 스탬프 투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역사 ·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목표는 전국 1등!… 관성회관 협조 속
옥천향수어린이집 119동요대회 연습 총력

충북 예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충북 대표로 선발된 옥천향수어린이집이 오는 9월 16일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27회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출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원생 24명과 지도교사 4명, 소방공무원 5명 등 총 33명이 팀을 이뤄 '119로 신고하지요'라는 곡으로 전국 유치부 19개 팀과 경합을 벌인다. 특히 옥천문화원의 적극적인 장소 (관성회관) 협조를 통해 아이들은 실제 무대와 유사한 환경에서 입 · 퇴장 동선, 발성, 안무 동작 등 총 5회에 걸친 집중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119 전국소방동요대회 참가하는 향수어린이집 아이들〉

OKCHEON CULTURAL CENTER • MONTHLY QUIZ

알쏭달쏭 옥천 문화·역사 상식 퀴즈

우리 고장 옥천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 퀴즈를 풀며 아름다운 옥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보세요!

PART 1. O / X 상식 퀴즈

Q1. 옥천군은 9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O / X)

Q2. 옥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은 청산면이다. (O / X)

Q3. 조선왕조실록에 3,000번 이상 이름이 나오는 우암 송시열 선생은 '화양동주'라는 또 다른 호가 있다. (O / X)

Q4. 옥천군은 북쪽으로 보은군, 남쪽으로 영동군, 서쪽으로 대전광역시와 접하며, 동쪽으 로는 상주시와 접한다. (O / X)

Q5. 옥천군의 상징 군화(郡花)는 개나리이다. (O / X)

Q6. 옥천군의 상징 군목(郡木)은 목련나무이다. (O / X)

Q7. 옥천군의 상징 군조(郡鳥)는 까치이다. (O / X)

Q8. 물류 교통의 요지인 옥천의 경부선 옥천역은 일제강점기인 1905년에 처음 개업하였다. (O / X)

PART 2. 객관식 퀴즈

Q9. 옥천이 낳은 한국 문학사의 대표 시인으로 '향수', '고향' 등 아름다운 시로 유명하며, 매년 그를 기리는 문학 축제가 열리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 김소월 ㉡ 윤동주 ㉢ 정지용 ㉣ 한용운

Q10.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옥천의 유서 깊은 교육 역사를 보여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 옥천서원 ㉡ 영동향교 ㉢ 옥주서원 ㉣ 옥천향교

📌 정답 및 향토 해설

Q1. O (1읍 8면 구성)
Q2. X (가장 인구가 많은 면은 '이원면')
Q3. O (화양동주: 화양동의 주인)
Q4. O (동쪽으로 경북 상주시 접경)
Q5. O (옥천군 군화: 개나리)
Q6. X (군목은 '은행나무')
Q7. X (군조는 '비둘기')
Q8. O (1905년 1월 1일 개업)
Q9. ㉢ 정지용 (지용제 개최)
Q10. ㉣ 옥천향교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 본 페이지는 옥천 문화·역사 홍보를 위해 제작된 월보 수록용 퀴즈 코너입니다.

파독 간호사 60년, 베를린에서 옥천까지…

무대 위에 다시 피어나는 '코리안 엔젤'의 기억

스무 살의 청춘은 무엇을 꿈꾸었을까. 낯선 땅으로 떠난 그 청춘은 60년의 세월을 건너 어떤 모습으로 남았을까. 이제 그 역사가 다시 무대 위에 선다. 베를린에서 옥천으로. 청춘에서 오늘로. 기억에서 기록으로.

옥천의 향토극단 '향수'(대표 이종서, 회장 박효근)가 파독 간호사들의 삶과 꿈을 담은 특별연극 「베를린 천사의 일기(Das Tagebuch eines Berliner Engels)」를 한국과 독일 양국 무대에 올린다.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9월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첫 무대를 열고, 10월 3일 오후 6시 30분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을 만난다. 공연 시간은 70분이다.

이번 작품은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파독 간호사 연극단 '빨간구두'와 옥천 극단 '향수'가 함께 만드는 한독 협력공연이다.

텍스트와 음악, 춤,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에는 평균 연령 80세의 파독 간호사들이 직접 올라 자신의 목소리로 지나온 세월을 증언한다.

작품의 제목은 독일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1987년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편, 이번 협업 연극은 CJB에서 다큐로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베를린 현지 공연과 촬영을 위해 '향수' 단원 5명이 9월 2일 독일로 떠난다.

[편집위원/천기석]

〈옥천전국연극제에서 극단 '향수'와 합작 공연하게될 독일 '빨간구두' 연극단원 (사진제공=이종서 대표)〉

옥천 주민들이 이어온 탑제, 도 지정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

- 마을 공통체 문화로 인정 -

충북도는 지난 7일 '옥천 마을 탑제'를 도지정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예고에 따라 충북도는 향후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충청북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 마을 탑제'는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의례로,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 이어져 온 민속 문화다.

마을 단위로 전승되어 온 이 의례는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북도의 이번 지정 예고는 단순한 문화재지정 차원을 넘어 지속적인 연구와 보존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실제로 '옥천 마을 탑제'는 2022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에는 학술연구로까지 확대되며 문화적 가치와 전승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옥천 마을 탑제'는 역사성과 지역성, 그리고 공동체 문화로서의 상징성을 고루 갖춘 전통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점차 약화되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세대 간 문화 전승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이번 지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옥천 마을 탑제'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문화의 가치 확산과 관광자 원화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품의 제목은 독일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1987년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편, 이번 협업 연극은 CJB에서 다큐로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베를린 현지 공연과 촬영을 위해 '향수' 단원 5명이 9월 2일 독일로 떠난다.

[편집위원/김묘순]

〈지난 정월 대보름날 김대훈 옥천문화원장이 청마탑신제를 지내고 있다.〉

기억 속의 여름방학 방학숙제

방학하면 여름방학... 여름방학하면 뭐니뭐니 해도 물놀이가 최고였다. 지금처럼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튜브하나씩 허리에 끼고 둥둥 떠다니다 뭍에 있는 엄마가 "수박먹어~" 하면 양손을 번갈아 가며 노저어 수박조각 하나 씩 받아서 한 입 베어 물면 "하!" 그냥 절로 탄성이 나왔었다.

방학 내내 물로 들로 때양 볕이 내리 쬐도 선크림 하나 바르지도 않고 눈 내리는 날 멍멍이 마냥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 놀았었다. 그러다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어느덧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그제서야 방학숙제가 적힌 안내문을 쳐다본다. 앞이 캄캄해진다. "그냥 방학 시작할 때 얼른 다 해놓을걸", "엄마가 하라고 할 때 할걸..." 이미 늦은 후회인 줄 알아도 매번 반복된다.

그 때부터 온 집안 식구들이 방학숙제에 동원되어 역할이 자연스레 분담된다. 할머니는 잔디씨 모으기 담당, 나는 일기 몰아 쓰기 담당, 가장 많은 담당을 맡은 엄마는 곤충채집 및 만들기 담당.. 등등 이렇게 온 집안식구가 대동단결하여 일주일 안에 기어이 방학숙제를 끝내고 만다. 새삼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그냥 거져 생긴게 아니라 "타고났다" 라는 것을 느껴본다. 초등학교 졸업한지 거의 30년이 훌쩍 넘었는대 기억이 생생한걸 보니 어지간히도 조급했었나 보다. 지금이 딱 방학 시즌인데 우리 큰애는 이것저것 학원에 다니느라 직장인인 아빠보다 더 바쁜 것 같다. 요새는 애들 바쁘다고 방학숙제도 안낸다고 하던데... 이참에 딸래미 방학숙제나 한번 내줄까?

[편집위원/정회원]

옥천의 여름 민물고기 낚시

근래의 여름은 20~30년 전 여름보다 훨씬 무더운 것 같다. 그 때는 선풍기와 부채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어디에나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도 땀이 주르륵 흐른다.

금강이 흐르고 있는 옥천은 차타고 몇 분만 가도 쉽게 강을 찾을 수 있다. 요맘때 즈음은 특히 메기와 꺽지의 손맛이 좋다.

쏘가리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니라 아쉽긴 하다. 어둑어둑한 저녁 즈음 동네 친구 두명과 고기와 약간의 술 및 낚시가방을 싣고 인근 강가의 소위 "포인트"로 향한다. 도착하면 말하지 않아도 낚시대 펴고 떡밥 뭉치는 1인, 불피우고 고기구울 준비하는 1인, 뭐할까 어리버리 타는 1인.. 이렇게 알아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

얼추 자리 세팅이 마무리 되면 둘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삼매경에 빠진다. 여자들만 수다가 많은게 아니란 걸 느낀다. 그러다보면 이제 낚시는 뒷전이 되어서 뭐라도 걸리거나 말거나 관심 밖이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자니 점점 날은 밝아 오고 챙겨온 고기도 다 떨어져 갈 때쯤에서야 낚시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 집을 나올 때는 대물 한 마리 잡아 온다고 큰소리 쳤는대 말이다. 하기사 친구들과 이야기 하러 왔지 물고기 잡으러 왔나? 혼자 중얼거리고 있자니 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1인이 주변을 주섬주섬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낚시도 그만 접을 때가 된 거다. 뭐 우리한테 까지 잡히면 옥천 매운탕 가게는 어쩌라고 하면서 자리를 뜬다. 이열치열 시원한 여름 메기 매운탕은 사 먹는게 제일 맛있다.

[편집위원/김억수]

제18회 옥천 짝짜꿍 전국 동요제

2026. 9. 18. (금) 13:00

관성회관 대강당

2회 짝짜꿍 동요축제 개최 예정 안내

2027년 4월 22일(목) 40회 지용제 주무대에서 다시 만나요!

신청서접수	2026. 8. 21.(금)까지
시 상 내 역	대상(1팀) 상금 500만원
	금상(1팀) 상금 300만원
	은상(2팀) 상금 각 100만원
	동상(3팀) 상금 각 70만원
	장려상(3팀) 상금 각 50만원
	특별상(4팀) 상금 각 20만원
문 의	043-733-5588

주최·주관 옥천문화원 정순철기념사업회 후원 옥천군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의료법인 세명의료재단

세명요양병원

참사랑과 나눔으로 정성을 다하는 병원

양·한방 협진진료체계

전문 치료 분야

- 호스피스
- 치매
- 중풍
- 노인성질환

환자 중심 맞춤 케어 시스템

- ✓ **24시간 전문 의료진·간호인력 상주**로 안심할 수 있는 밀착 케어
- ✓ **개별 맞춤형 한방 침구 및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제공
- ✓ **쾌적하고 안전한 최신 요양 시설** 완비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의 전문 의료진이 가족 같은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설과목

- ✓ 내과
- ✓ 일반외과
- ✓ 재활의학과
- ✓ 가정의학과
- ✓ 신경과
- ✓ 한방내과

상담 및 위치 안내

전 화 042) 252-8275~7

팩 스 042) 255-8575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99 (선화동)

위 치 선화동천주교성당 맞은편

하내리 토종꿀

"고대 로마인들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리)슬 이라 불렀습니다"

토종벌집꿀 1.8kg ₩ 55,000

토종꿀 500g ₩50,000

토종꿀쫀드기 30포 ₩28,000

카드 결제 가능 문화원 회원 우대 할인가 15%

충북 옥천군 군북면 환평길 20-31 김미연 010-5877-168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내리

월간 옥천문화

발 행 인 | 김대훈 원장
편집·집필위원 | 김묘순 위원장, 천기석 위원, 김억수 위원, 정회원 위원
간 사 | 옥천문화원 이성욱 과장
창 간 일 | 2026년 3월 25일
발 행 처 | 옥천문화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5
대표전화 043)733-5588 팩 스 043)733-8004

※월간옥천문화는 옥천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